

# 神學大學教育의 課題



監理教神大學長 朴 奉 培

## I

神學大學教育을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一般 大學教育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염려하면서도 教育이란 시로 相通한다는 견제 하에서 이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傳統的으로 神學教育의 三大要素는 學問의 形成, 專門家의 形成 그리고 靈的인 形成을 말한다. 즉 神學의 學問의 수련이 그 첫째요, 職業的 訓練으로서의 기술연마가 그 둘째요, 信仰의 人間形成이나 人格形成이 그 셋째이다. 神學도 學問이기 때문에 學問의 形成이 神學教育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통적으로 神學은 信仰의 體驗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때로는 反知性的 성격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信仰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理性的 說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바를 체제화해야 한다는 요청 때문에 學問의 形成은 무엇보다도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神學教育은 學問的, 理論的 訓練이 그 기초를 이룬다. 神學이란 말 Theo-logie가 말해 주는 대로 神學은 神에 대한 logie 즉 理論이다. 특별히 西歐神學은 이 logie를 중심하여 思辨的이고 論理的인 性格을 강하게 풍긴다. 이런 思辨的

論理志向的인 西歐神學은 그 特色이 理論神學의 形成에 있었다. 대체로 神學은 4개 分野로 구분된다. 즉 歷史神學, 聖書神學, 敎理神學 그리고 實踐神學이 그것이다. 그런데 西歐神學에 있어서는 歷史神學, 聖書神學 그리고 組織神學만이 크게 논의되고 實踐神學 分野는 대체로 등한시되는 경향이 짙다.

神學이 너무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그치게 될 때 여기에 문제점이 나타난다. 즉 信仰이 앞서고 神學이 뒤따르는 것이 되어야 할 터인데 理論이 앞서고 경험이 뒤지거나 아예 理論만이 있고 경험이 무시되는 경향성 때문이다. 「神學의 原資料는 思辨이나 論理自體가 아니라 人間의 現實的인 삶 속에 具現되는 그리스도 事件」 즉 信仰的 경험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英美系統의 神學이 이런 점에서 補充的인 구실을 하는 것 같다. 즉 英美系統의 哲學自體가 구라파의 思辨的이고 論理一方的인 性格과는 달리 經驗的인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그래서인지 實踐神學은 英美에서 강한 것이 사실이다. 西歐神學 自體에 있어서도 너무나 지나치게 思辨的이고 形式的인 神學體系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現代神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Schleiermacher의 神學의 출발점도 思辨이나 論理의 對象으로서의 神이 아니라 내게 經驗되어지는 神 그래서 「絕對

依存의 感情」이 神學의 근거요 기초라고 하였다. 물론 이런 강조마저도 다분히 思辨的인 性格을 띠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서적인 면에서의 경험을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現代神學의 信仰의 主體性에 대한 강조는 그 主體가 경험하는 宗教라는 입장에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思辨的, 論理的 神學은 극복하려고 하였다. 더구나 實存主義 哲學의 대두는 더욱더 神學의 主體性으로서의 人間實存을 강조하게 되었고, 보다 강하게 思辨的이고 合理的인 神學에 대해 反叛을 들게 되었다. 그래서 思辨性, 客觀性, 合理性에 반대하여 決斷性, 主體性, 不條理性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主體 또는 主觀을 강조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런 경향성은 근래에 와서는 社會的, 政治的 狀況으로 그 경험의 장이 확장되어 政治神學이나 革命神學 등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實存主義 神學이 개인의 실존적 삶의 자리를 主觀的으로 문제 삼았다면, 政治神學이나 革命神學은 人間의 삶의 統體的인 狀況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神學의 노력과 傾向性이 現代神學의 特色을 다음과 같이 결과한다고 생각된다. 즉 理論과 實踐(Theorie & Praxis)을 일치시키려는 努力이다. 소위 산 神學(living theology), 神學化(theologizing), 實踐正統化(ortho-praxis) 또는 狀況化(contextualization) 등은 神學을 실천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나타나는 神學者들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神學이 理論이나 論理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現場에서 살아지고 生活化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삶의 現場과 狀況에 대한 檢討와 分析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社會學, 心理學, 相談學, 宗教社會學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것들이 神學大學 教科課程 속에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Freud 이후 社會心理學은 宗教心理學, 相談學 등에 크게 영향을 주어 60年代 이후 이 방면의 科目들이 중요시되면서 근래에 와서는 專門的인 訓練을 現場에서 상당기간 동안 실시하는 臨床牧會教育(C.P.E.) 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傾向性은 자연히 實踐神學 系統의 科目들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美國을 중심으로 牧會學 系統으로 牧會行政學, 說敎學, 相談學, 牧會神學 등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한편 實習敎育 또는 現場敎育이 강조되어 理論뿐 아니라 실제적인 見習과 經驗이 중요시되었다. 어떤 神學大學에서는 아예 학교에서의 理論과 實際的인 現場을 연결시켜 敎授 2명에 牧會牧師 2명을 한 team으로 또는 集團敎授制로 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는 敎室에서 그리고 다음날은 現場인 敎會에서 강의와 경험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方法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神學敎育의 둘째 要素인 專門家的 形成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의 職業的인 訓練이 강행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實習敎育이나 現場敎育을 통해 그리고 自己自身的 反省이나 人格形成의 검토와 연결시켜 대부분의 美國의 神學大學에서는 1~2년의 공부가 끝나면 專門家的 또는 職業的 評價(professional evaluation)를 하여 不適格者들을 탈락시키고 있다. 대체로 職業的인 訓練이나 專門家的 修練은 특히 宗教心理學이나 相談學의 發展과 더불어 강력하게 주장되어 美國 系統에서는 學問的인 形成보다도 더 강조되어 온 듯한 것이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神學敎育의 경향성이 아니었다 생각된다. 이것은 西歐의 지나치게 思辨的이고 形式的인 神學敎育에 대해 英美 系統에서 반발하거나 보충하는 각도에서 성취해 온 現代神學의 현저한 동향인 것 같다.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神學敎育은 아직도 배우고 경험하고 制度化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學問的 形成의 방향 전환과 專門家的 形成의 강조와 더불어 최근래에 와서 강조되는 것이 人格形成의 문제이다. 牧師라는 職業의 特殊性 때문에 그 인간됨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고, 어쨌든 宗教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의 實踐과 모범적 실천수법이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牧師란 어떤 人間이 되느냐에 그 職業의 成敗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神學敎育의 目標은 敎團이 요청하는 어떤

敎職者를 生産한다는 전통적 개념을 버리고 人間形成 즉 기독교적 의미에 있어서의 人間完成이나 성숙한 人間形成에 그 目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지나치게 人間形成만 주장하다 보면 일반적 敎人和 牧師의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반문하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건 自身이 참된 人間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참된 人間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主張도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경향성은 오늘날 全人敎育, 人格敎育을 강조하는 일반적 敎育風土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神學大學 志望生들이 대체로 W. James의 이론대로 世上에서 불우한 처지에서 자란, 소위 그가 말하는 병든 마음의 所有者들(sick-minded)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靈的인 指導者로서의 人格形成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神學大學이 받아들여 入學試驗時에 適性檢査를 시행한다든가 또는 최소한 卒業 1년 전에 Professional Assessment를 통해 責任 있는 指導者 養成을 한다는 見地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 II

필자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神學敎育의 三大要素를 중심으로 오늘날 西歐나 英美 系統 神學大學의 일반적 경향성을 고찰해 보았다. 과연 그런 論議나 경향성이 우리 韓國의 狀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

韓國의 神學敎育도 그 學問的 形成에 있어서는 다분히 西歐의 영향을 받아 思辨的이고 形式的인 理論中心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理論을 실천화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것은 단순히 實踐神學의 강화로만 이루어질 性格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歐美의 神學者들에게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狀況化에서 그칠 수 있으나 非基督敎의 文化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土着化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文化的 傳統과 우리의 文化的 傳統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들에게는 狀況化로서 해결될 문제일지 모르나 우리들에게는

土着化에서 狀況化에로의 이중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 즉 傳統的 文化的 宗教의 빛 아래에서 韓國의 神學의 수립이라는 土着化와 오늘의 政治的·社會的 現實 속에서의 기독교적 삶의 實踐化라는 狀況化가 二重的으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의 神學이 輸入神學이란 탈을 벗기 위해서도 土着化의 必要性은 절실하다.

다음으로 專門家的 形成에 있어서는 우리의 神學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敎科目的 內容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 神學이 實踐的인 면에 강조를 두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反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歐美의 것을 直輸入하는 形式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런 方法論들이 韓國적 風土와 狀況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批判的인 角度에서 그리고 土着化的인 見地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 分野에 있어서는 아직도 開拓時代에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人格形成의 문제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關心事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牧師라는 職業이 어느 다른 職業보다 한층더 人格的 成熟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특히 神的인 後光이 점점 사라지는 現代 世俗社會에서의 牧師職의 權威는 個人的 人格形成을 통해서만 補充될 수 있다는 見地에서이다. 인간됨이 없이 指導者가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 사실이라면 牧師職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 神學→技術→人格의 順序는 人格→神學→技術의 順序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一般敎育에서 강조되는 全人敎育, 人格敎育은 더욱더 神學敎育에서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런 논의를 통해 오늘날에 있어서는 神學敎育의 三大要素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의 文化的·社會的 狀況에 어떻게 土着的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課題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要素는 神學뿐 아니라 一般 大學敎育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한번 검토해 볼 것을 겸히하게 추천해 보는 바이다. \*